

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등용마을

태양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등용마을의 생명평화마중물과 부안시민발전소는 2008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교 및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햇빛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로 생산된 전기로 생활하며 음식을 익혀먹고, 소형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다루고 만지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출자한 전국 최초의 시민발전소

부안군 등용마을 주민들이 6월 6일, '등용마을 시민발전소'를 설립했다. '등용마을'은 '생(生)·거(居)·안(安)'의 의미를 담은 '등용(生居扶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003년 '등용마을'이 '등용마을'로 바뀌었다.





